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창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가본 사람은 다 가 봤다는 해외 원정 성매매

올해 9월 26일 전국 업주연합인 한터전국연합(이하 ‘한터’)과 성매매 종사자는 ‘전국 성노동자·성산업인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4년에 시행되어 온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여성들의 존엄과 가치를 비하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또 “해당 법률조항 시행 후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변종 성매매의 유형과 경제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며 성매매특별법때문에 해외 성매매가 늘어나고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폭력적인 환경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의 단속이 심해서, 또는 얼굴 털 팔리면서 안전하게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성들은 해외로 나가기도 한다. 일본, 미국, 호주로 해외 원정 한번쯤은 다 갔다 오고, 주변에 갔다 온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낮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성매매특별법’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궁금하다.

‘원정녀’를 아시나요.

“1호부터 33호까지 있습니다.” 외로운 남녀를 짝지어 주는 애정촌 애기가 아니다. “원정녀 19호는 인물이 반반하고 동영상 액션이 좋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일본, 미국등의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섹스동영상이 떠돌아 다닌다. 몰카(몰래카메라)가 분명한 것들로 야동처럼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까지 가서 몸파는 국가망신 시키는 여성이라 비하하면서 ‘원정녀’ 따위의 이름을 붙여놓고 신나게 욕을 해대면서 뒤로는 등장 여성을 품평하면서 호기심을 충족하고 성적인 대상으로 소비하는 행태이다. 점잔빼는 언론이라고 다르지 않고 세계화된 시장의 흐름을 타고 국제화된 성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를 짚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상들을 나열하는데 그치거나, 그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상세히 알려주며 선정적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급급하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단죄하면서 국제적 망신으로 마무리 짓는 논조는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성매매 여성들은 어떻게 해외로 나가 ‘원정녀’로 불리게 되었을까.(참조-‘해외 성매매...’원정녀’는 없다 여성주의저널 일다 2012.10.15.)



출처:여성주의저널 일다. 박희정

누 구 에 게 쉬 운 돈 벌 이 ?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로 입국한 한인 여성들의 성매매 문제가 심각하다고 난리다. 일부 지역(퀸즈랜드 주)을 제외하고는 구청의 허가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성매매가 허용된다. 한국인 여성들도 비자만 있으면 성매매가 가능하다. 한국보다 돈 벌기도 수월하다. 한국정부에서는 실태를 파악한다고 하면서 검사를 파견하네 마네하고, 호주 성노동자 단체에서는 합법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악의적인 언론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모양새다. 놀랍게도 호주 한인 성매매 문제를 키운 것은 호주로 원정가서 돈 벌어보겠다고 간 여성들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성매매 및 마약과 관련한 일을 하다가 미국 당국의 추적을 받자 2000년 초반 호주로 도피해 ‘홍’씨와 심복인 조폭 출신 ‘박’씨. 이들은 처음 호주에 건너와서 고리사채업으로 시작했다. 2004년 시드니 뉴타운에 ‘엔젤타운’을 차렸는데 이곳은 호주에 있던 여느 성매매업소와는 달랐다. 당시 호주에는 손님과 여성이 직접 성관계를 갖는 ‘풀샵(풀서비스 업소)’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증기탕(터키탕)과 같이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샵’이 주류를 이루었다. 홍씨는 기존 성매매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식 풀샵’을 도입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성업 중인 ‘풀살롱’을 연상하면 된다. 엔젤타운은 100% 한인 여성들만 고용해서 영업을 했다. 홍씨는 업소 여성들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에 공급 조직을 구축했다. 호주 교민 등에 따르면 홍씨와 연결된 한국의 직거래 공급처는 3~4곳 정도라고 한다. 주요 공급책은 평택과 파주 용주골 등 사창가의 업주들이다. 이들과는 오랫동안 거래 관계를 맺어왔다. 홍씨는 한국에서 사채를 갚지 못하는 여성들을 호주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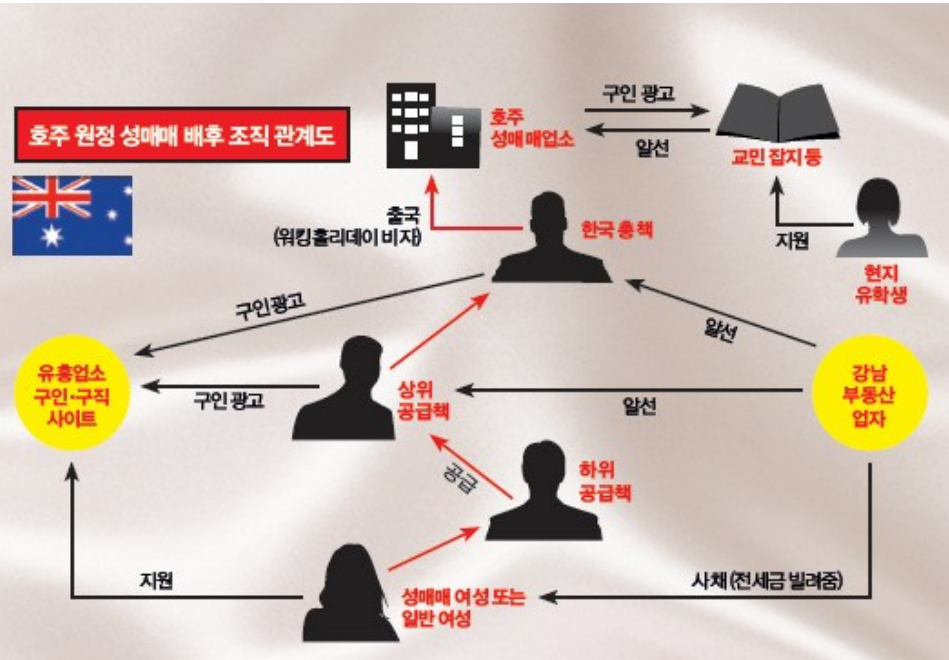
호주 원정 성매매의 배후에는 브로커 조직이 있다. 엔젤타운처럼 국내에 공급 조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일명 ‘에이전트’로 불리는 한국의 공급책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원정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호주로 보낸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 논현동 일대의 부동산업자들이 호주 성매매 알선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방을 얻을 전세금이 없는 여성들에게 사채로 돈을 빌려준다. 그리고는 상환하지 못하면 공급책에게 마이킹(선불금)을 받고 넘긴다. 유흥업소 전문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한다. 특히 호주의 경우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 ‘한 달에 1천만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가능하다’ 등의 광고 안내문으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다. [“미국 땅 ‘수렁’에 빠진 한국 여성들” 시사저널 2011.12.18]

한인 여성들의 성매매는 브로커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호주로 가기전 이미 국내에서 사채와 같은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도무지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풍선효과’라고 둘러대기엔 한국형 성산업은 조직적이고 빈틈없이 여성을 통제하면서 성구매자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그랬고 해외여행이나 출장, 사업, 유학등이 자유롭고 쉽게 이루어는 근래에는 한국형 성산업이 발맞춰 해외에서까지 따라가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 난 스 러 워 도 너 ~ 무 유 난 스 러 운 한국 형 성 산 업

러시아 한 지방도시에 위치한 한국 기업의 공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의 단체 성매매를 알선한다. 공장 관계자는 “이곳에는 한식당도 별로 없고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라도 직원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한다.-‘한국형 성산업과 성매매 문화의 국제적 팽창’보고서(서울대 국제대학원)

2003년 당시 러시아 교민 수는 3000명이고 이 중 성인 남성이 800명이었는데, 성매매 여성 수는 400명에 달한다고 적혀있다. 태국에는 교민 정보지에 광고하는 업소만 30곳이 넘는다. 인도네시아는 룸살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가 100여개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도 업소당 20~30명이 종사하는 한인 성매매 업소가 12개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소의 주인은 대부분 한국인이며, 술판매와 성접대를 결합한 한국식 ‘겸업형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 베트남에서는 홀과 방을 갖춘 노래주점에서 성매매 여성과 장소를 제공한다. 러시아의 성매매 업소들은 호텔의 한 층 전체를 빌려 레스토랑, 노래방, 객실을 ‘논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형태가 많다. 한국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회식을 하거나 본사에서 온 임원이나 공무원 등을 접대할 때 이러한 업소를 이용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1차는 술과 노래방, 2차는 성매매가 공식처럼 돼 있다는 것이다.[“어글리 코리언” 한달에 한번씩 직원 단체 성매매 알선” 경향신문 2011.11.21]



이처럼 국가를 가리지 않고 한국인 남성구매자와 한국형 성산업이 적극 결합한 곳에서 원정 성매매라는 것이 이뤄지고 있는것이다. 호주 성산업에 유입된 한인 여성들의 실태를 조사한 부산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에 따르면 한인 여성들의 성매매는 브로커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호주로 가기전 이미 국내에서 사채와 같은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도무지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풍선효과’라고 둘러대기엔 한국형 성산업은 조직적이고 빈틈없이 여성을 통제하면서 성구매자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그랬고 해외여행이나 출장, 사업, 유학등이 자유롭고 쉽게 이루어는 근래에는 한국형 성산업이 발맞춰 해외에서까지 따라가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외 로 움 도 깊 고 설 움 도 깊 어

낯선곳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동반한다.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폭력을 겪거나 위협에 노출되면 따지거나 쉽게 그만두고 나와 다른 업장으로 옮기는 것도 너무 어렵다. 해외에 있다는 것은 이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감금상태가 아니라도 갇힌 듯한 기분을 주기도 한다.

“어디 알지도 못하는 일본 촌구석에 쳐박혀서 일만 하는데 말도 안통하고 갈데도 없고 죽을것같이 답답했지. 청량리있을 때 단골이던 일본인 손님한테 전화해서 나 좀 어디 데려가 달라고 해서 그날 도쿄를 침 갔어. 가서 돌고 오니 좀 살 것 같더라구”-일본 A

“일이 여기보다는 쉽다고 가게 주인언니 동생이 일본 가서 일하라고 해서 일본을 갔어요. 거기서 언니 두명이랑 일을 했는데 여권은 뺏겼지. 언니 두명이 다 도망가니까 그 언니들 빗까지 나한테 갚으라고 때리고 이빨 뽑아서 섬으로 팔아버린다고 겁을 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3년동안 죽어라 일해서 버는 대로 다 주고 겨우 나왔어요.”-일본 B

“사채 때문에 차용증을 쓰고 미국을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슴성형을 하라고 해서 한국 잠깐 들어온거 빼고는 미국에서 일만 했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선불금이랑 성형할 때 빗까지해서 아무것도 남은게 없어요.”-미국 A

“돈은 많이 버는데 너무 고생스러워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미국 B

호주처럼 성매매 자체가 자유로운 곳에서는 휴대전화 금지나 감금등이 아니라면 경찰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이 외의 실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사실이 없다며 거절을 당하거나 지원을 받을 곳이 없기도 하다. 걱정하고 개입된 브로커와 돈이 되는 곳으로 물리면서 한국형 성매매업소를 차려 돈을 버는 업주들. 이 틈에서 지금보다는 좀 덜 힘들게 일하면서 빚도 갚고 돈도 벌어 볼까 하는 생각에 외국으로 나가는 여성들. 그러나 단속의 위험, 불법체류자로 추방되고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야 하고 외로움은 각자의 몫으로 감당해야한다. 단속이 없는 국가에서는 정작 필요한 지원이나 도움이 생겼을때 비빌언덕도 없이 답답하기만 하다. 성매매피해지원 상담소에는 가끔 호주나 일본 현지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한다.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업주의 협박이나 선불금을 앞세워 위협하는 경우, 맞보증 문제, 가족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잡아두는 행위, 폭행 등등 국내에서 이뤄지는 상담과 별반 다를바 없다고 한다. 이런 저런 속사정에는 관심 없고 언론에서는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내용으로 왜곡시키기 바쁘고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조롱하고 소비하기를 즐긴다. 왜 여성들은 돌고돌아 야 하는지. 왜 계속 되는 고단함으로 국내나 해외나 별반 다를것이 없이 살아야하는지 궁금하지도 않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깡]



별별민화-두번째 이야기

와- 눈 온다!

집이 필요해

by 박희정

보송보송한
항방눈이
내리는 날

호박과마
주워지는
항기를
말으며

아!

계약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네...

여기가
천국이구나
~♡

별별이랑
따뜻 바닥에
바 깔고 앉고
있으면

핑

왜지...
불길해

누...구?

사
말
작

월세 30만원
27일까지
입금해줘요
그리고...

우리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월세나 보증금 등 줄에
하나는 꼭

올려야 하는 것
알죠?

내 처지랑
비슷하구나...

아무리 열심히 발품을
팔아봐도

싼곳을 찾자니 너무 낡았거나 위험해보이고,
좀 괜찮으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비싸고...

비싸도
너~무
비싸!

근로자 아파트 정책
만 26세 이하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정책
만 35세 이상 '직장인'

주택정책?
에이, 똥이다!

점필화4쌍
여기도 있다!!

돈 빌릴 곳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엄마집?
아냐. 거기도
있을 수 없어.

무
뽕족한 수가 <
없을까...

돈 빌리면
서울에서 살아야
하고...

남자친구에게
같이 살고
할까?

같이 살면 남편이 허는
대로 다 하게 되잖아...
헤어지는 것도 어려워!

잘못 걸리면 역공사만 당해!!

지난번에 예나도 잘못 걸려서
맨날 맞고 돈 뜯기고...
일도 못하고 있잖아!!

손님한테
공사칠까?

넌서 몇 번째야!!!

이미 다 갚은 것도 차용증 안 돌려
주잖아 ~ 나중에 소송
한꺼번에 들어온다는데!!

마담한테
또 땡길까?

그럼...

Lotto

... 하아

이 수많은 집 중에 내몸 하나 누릴곳 없네...

이래도 되는거야?
응?!

비혼 여성이 살 곳은 어디에?

여성들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환경'은 중요하지만 실제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주거불안정'과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다. 1인 가구 여성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지역 중심의 안전 체계'와 '건강 및 의료지원체계', '임대주택 및 아파트 우선권 부여'다. 45만 여성 1인 가구는 전체가구(357만 7,397가구)와 비교하면 12.6%를 차지한다. 이처럼 여성들의 주거권이 절박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언니들에게 새로운 서울시의 정책과 함께 괜찮은 임대주택을 소개 하고자 한다. (8면 살살 정보에서 이어짐 ☞)

노래방도우미는 안전할 권리가 없는가?

유혹업소여성 폭행, 감금한 자의 ‘취업’ 걱정하는 재판부

지난 11월 4일 서울동부지법은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도우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기절시킨 후 밤새 차에 태워 끌고 다닌 혐의(상해·감금)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도망치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건물 계단으로 던져 피해자를 실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수위의 폭행이었다.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초범이며, 순간적으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감금은 추가 범행을 위한 게 아니라 사태 수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에 그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취업에 있어 심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왜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일까

성범죄는 신고율이 낮고 기소율은 더더욱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범행을 한 가해자라도 ‘초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초범’이라는 사실이 양형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접하며 1년 전 사건이 떠올랐다. 2011년 성폭행을 당한 한 여성이 노래방도우미였다는 이유로,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가해자를 두둔한 일이다. 피해여성은 억울함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긴 채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에 이러한 일은 너무 많다. 설사 성적 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목적으로 형성된 관계일지라도, 언제 어느 때나 구매자의 욕구에 맞출 수는 없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한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른다면, 여성의 직업과 상관없이 성폭력일 뿐이다.

작년과 올해 두 사건에서 가해자를 두둔하고 가해자의 처지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참작해 준 재판부의 판단에는, 노래방도우미인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결정, 공정하게 하라

특히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 성폭력의 경우엔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범죄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합의를 했다는 이유가 양형에 영향을 크게 미쳐서는 안 된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흉악한 성폭력 사건에 공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 형이 높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잇따르는 노래방도우미 대상 폭력에 주목해야

다른 유혹업소 종사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이었지만, 최근 들어 노래방도우미의 폭력피해와 관련한 판결이 언론 보도에서 자주 눈에 띈다.

올해 9월에는 4년 전 노래방도우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범인이 검거되었고, 8월에는 1년 전 창원 노래방도우미 살해범이 감형을 받았으며, 7월에는 노래방도우미를 살해한 범인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고, 6월에는 노래방도우미를 성폭행한 소개소 업주가 구속되었다.

유혹업소에 종사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성범죄와 폭력, 갈취와 감금 등의 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많은 피해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노래방도우미라는 이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찾아볼 수가 없다니 이상한 일 아닌가?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성산업 종사여성들이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아닌가 싶다. 노래방에서 여성도우미 없이 유흥을 즐기지 못하는 남성들의 문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유혹업소에 종사하기를 부추기고 유인하면서, 동시에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누가 그녀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가

이번 판결에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결은 폭행·납치·감금을 저지른 범인의 ‘취업’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사실상 ‘성매매’를 구매자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성산업에 종사하거나 2차를 거부하는 여성에 대한 범죄가 손쉽게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 창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노래방도우미’라는 직업 때문에 사망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패하기까지 했다. 노래방도우미는 ‘생명이 위태로운 직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역설적으로 유혹업소 종사여성들의 안전할 권리가 박탈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인 생존의 안전망을 빼앗긴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 글은 필자의 동의 아래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기사를 정리해서 실었습니다.
- 편집자 주

[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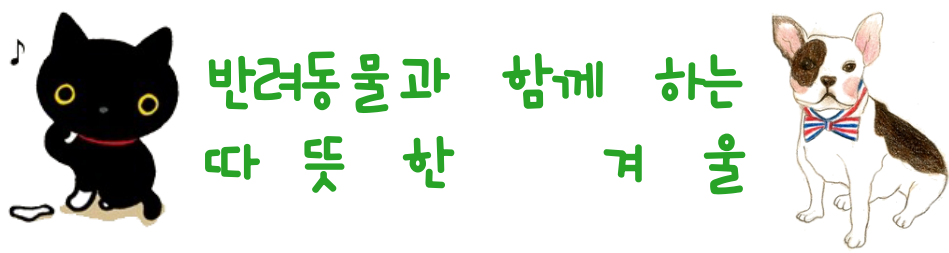
성폭력 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

-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 특위)'가 2012년 12월 6일, 20년 만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성과를 냈다.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유지되던 친고죄를 1992년 성폭력 행위 처벌 관련 특례 법안이 발의된 지 20년 만에 폐지했다. 친고죄는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겨 합의를 강요하고 고통을 유발하는 독소조항으로 오래 지적돼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성폭력 특위는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강간죄'를 신설해 일반 성인의 유사강간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 ▲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배제 확대
- ▲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 ▲ 범죄자 처벌 무기징역까지 상향 등 처벌 규정을 강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 ▲ 법률조력인 제도 확대
- ▲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 ▲ 피해자 및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
- ▲ 증인지원관제도의 법적 도입
-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 ▲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 ▲ 신상정보 공개 내용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확대
- ▲ 전자장치 부착대상·보호관찰 대상·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확대

[숨]



반려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왜 동물을 좋아하는 걸까. 더 나아가 우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가려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인간의 일상생활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동물이지만 반면 인간과 함께 살면서 가장 다양한 형태로 학대당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연간 10만여 마리의 개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잔인한 방법에 의해 학대당하며, 무더위나 강추위 등 잔혹한 환경에 방치되어 길러지기도 하며, 양육자의 안일함과 무지에 의해 험난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인간과 정서교감을 나누던 동물에 대한 학대는 인성적도와 연관되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의 반려동물은 인간의 정서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 이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챙겨 보자.

꼭 알아야 할 반려동물 관련법

〈반려견 동물등록제〉 전면 실시

서울시는 2013년 1월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한다. 등록 동물에게는 고유번호를 내장토록 하고 잃어버린 경우 주인에게 신속 인계할 방침이다. 내장형 전자칩 삽입,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 인식표 부착 중 방식은 선택 가능. 동물 미등록이 적발되면 소유주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반려동물 배설물 미처리 과태료〉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처리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친·소 언니들의 동물친구를 소개합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못해주더라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도록 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 마음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집주인! 어느 날 문득 식구가 된 묘령의 흰둥이!

뱃속에 복숭아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짱아와 우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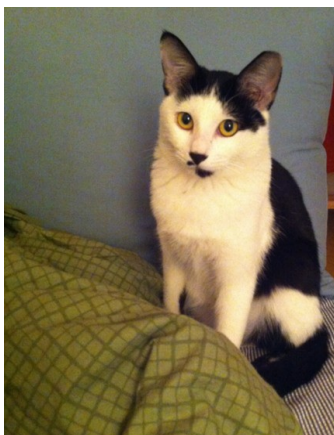
“이 아이들도 사람과 같은 생명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기 외롭다고 키우다 싫증나면 버리는 무책임한 행동 하지 마세요. 누구나 버림받으면 큰 상처가 됩니다.”



“이 아이들과 오래오래 살고 싶고 소중한 가족 같은 반려동물 입니다.”

주인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말랑한 젤리, 밥 말리, 말리!

임시보호 하다가 정이 들어 제대로 가족이 된 둘째 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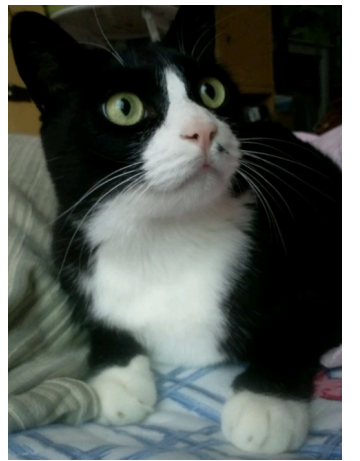
“이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단순히 동물이라기보다 제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이예요. 이 아이들이 아프면 저도 아프고 기쁘면 저도 기쁠 정도로 마음을 정말 많이 쏟았어요.”

배신 없고 잔소리 없는 태생 거묘, 최고의 서방 아서방!



“제가 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동물들이 정서적 안정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키워야겠다고 마음먹은 때와 보살핌이 필요했던 때가 맞았던 것 같아요. 이런 타이밍이 지금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인연을 만든 거라 생각해요.”

늘 깔끔하게 목욕하고 단장하고 있는 은진 언니네 애기들



귀여운 척 하고 있지만 숨길 드러운 흥대!



안락사 직전에 구조되어 지금은 똥냥이로 살고 있는 이대!

유명인과 함께 하는 반려동물

최근 방송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유명인들이 자주 보인다. 유기동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책으로까지 보여준 가수 이효리씨의 순심이 사랑은 모르는 이가 없다. 개그맨 김국진씨도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유기견과 마음을 열고 함께 살고 있다. 정치계에서도 동물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다(과연 대선 결과는?)



이효리와 순심이



문재인과 찐찐이



김국진과 덕구



동물 관련 단체 소개

아래에 있는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자신과 생각이 같다면 회원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국고양이보호협회 / 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단체 카라 / 한국동물보호연합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동물사랑실천협회 /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등



[숨]

2012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이 바닥 10대 뉴스

1. “성매매 불법·선불금 법적무효” 문구 유흥업소에 부착 의무화

2. 보건복지부, 유흥접객원의 범위에 남성도 포함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하려다 무산된 듯

3. 성매매 경험 여성들의 말하기 대회가 서울, 부산에서 열림(7면 기사참조)

4. 손님에게 살해당한 노래방 도우미, 사망보험금 지급 소송 패소

지난해 창원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김씨가 손님에게 목이 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의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소송을 진행했고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인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이행해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

5. 한터전국연합회,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

한터전국연합회와 한터여성종사자연맹, 남성단체 대표들이 '성매매 방지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9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방지법은 성인이 된 성매매 당사자의 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인 자유로운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낼 것이라고 하였는데 났는지는 무소식

6.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간부의 성매수 은폐 사실 드러나

국군 기무사령부 예하부대 A중령과 B준위는 성구매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자 민간친구 2명에게 부탁해 대신 형사 처벌받도록 했다. 기무사는 올해 5월 사건 조작 사실을 알고도 '대외노출 시 부대위상 실추' 등을 이유로 적법 처리하지 않고 자기네 선에서 유야무야

7. 제주 성매수 공무원 무더기 입건, '공직사회 술렁'

지난 2월,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 시내 한 휴게텔 업주를 수사하면서 카드 명세서 내역 등 성매수자 700여명의 자료를 확보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제주도청 간부, 교사, 군인 등 공무원 21명의 성매수 혐의가 드러났음. 조사를 받은 대부분의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8. 노래방도우미 기절시킨 후 밤새 태워 끌고 다닌 남성 벌금 700만원 선고

최씨는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건물 계단으로 던져 실신시켰음. 재판부는 “초범이며, 순간적으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취업에 있어 심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개소리를 함.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취업 걱정까지 해주고 앉았는 아량넓은 재판부라니. 이 넓은 아량을 대체 어이할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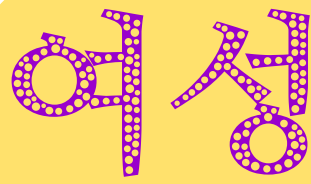
9. 서울시, 재개발 계획 확정... 청량리집결지 내년 철거

‘청량리 588’로 불리던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종전 계획상 촉진구역에 포함됐던 성바오로병원과 대로변 상가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사업구역에서 제외되고 규모가 축소돼 추진된다는 소식이 얼마전에 있었는데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0. 룸살롱 황제 이경백, 가짜 담보 위조서류로 허위 대출 받은 혐의로 조사중

룸살롱의 황제 이경백은 지난 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미성년자 고용, 수신택 원대 탈세 혐의로 수감됐다가 올해 7월 17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혼자 죽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뇌물을 상납한 경찰관들을 줄줄 불어 전.현직 경찰관 18명이 추가 구속됐다. 이미 경찰 자체 감찰로 경찰관 6명이 파면.해임, 33명이 징계를 받은 후이다. 석방된지 두달만인 지난 9월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경백을 다시 체포해 조사했다. 운영하던 유흥업소 종업원 28명에게 선불금 31억여원을 줬다는 가짜 서류로 제일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경찰은 체포 당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었다고. 검.경 힘싸움을 하는듯한 모양새인 와중에, 조작된 서류에 이름이 올라간 언니들은 어찌되는 것인지?...

〈무작위순〉 [용]



대통령은 탄생했는가

- 이 기사는 18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음.

TV든 인터넷이든 틀기만 하면 켜기만 하면 대선이야기 뿐이다. 지난 총선에는 박근혜, 한명숙, 이정희 등 주요 당 대표가 모두 여성이더니 이번 대선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집권 여당의 기호 1번 후보가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정말, 똑똑한 여자들이 많아진 거고 그래서 여자들은 살만해진 걸까?
여성대통령이 탄생하면, 여성들한테 좋은 걸까?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여성대통령의 탄생보다 더 의미 있는 역사와 민주주의 진전은 없다. 여성대통령의 탄생 그 자체가 우리 역사의 가장 큰 변화와 쇄신이기 때문이다.” - 새누리당 논평 중에서

여성대통령의탄생이 의미가 있고자 한다면 그 후보가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훌륭한 여성정책을 펴낼 때, 여성과 소수자,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만이 그러할 것이다. 단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평화적’이라든지 ‘부드러운 리더십’이 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 혹은 ‘그나마 여자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실낱같은 기대만으로 여성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이득이 없다. 더군다나 그녀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던 군부 독재의 딸이자 그 아버지의 후광으로 지금까지 정치적 생명을 이어온 자가 아닌가. 그녀가 아버지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미 몇 번의 역사인식 논란으로 밝혀진 바 있다.

재벌과 기업,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 정당의 ‘여성 후보’가 당선인 된다는 것은 여성인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때로는 높은 지위에 오른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여성들에게 더욱 가혹해진다. 성공하기 위해 남성보다 두 세배 쏟아 부어야 했던 본인의 노력이 있었기에 여성들에게 더욱 노력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었던 토양까지는 본인의 노력이 아님을 잊은 채 말이다. 젊은이들에게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들 하는데, 나는 애 젖 먹이면서 주방에 앉아 웰빙 진생쿠키를 만들었다”는 김성주 대표가 대표적이겠다. 그녀가 새누리당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나처럼 노력하라’고 말하는 생물학적 여성 지도자가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나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익을 대변해 줄 지도자가 필요하다.

일전에 박근혜 후보 핵심 측근 중 누군가가 "2030 여성 세대가 박 후보를 안 좋아하는 걸 보면, 잘난 여성을 질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 20-30대 여성들이 그녀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잘난 여성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아버지를 두었기에 구질한 일상을 겪어 내본 일이 없는 박 후보와 비정규직으로 카드빚에 월세 걱정에 허덕이는 내가 같은 여성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에게겐 6억 원을 건네는 ‘오빠’가 없지 않은가.

[용]

고마담의 고민살롱



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

성매매 경험 여성들의 토크쇼 “무한발설” 참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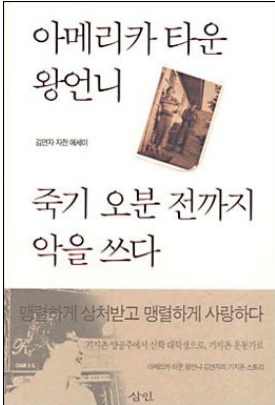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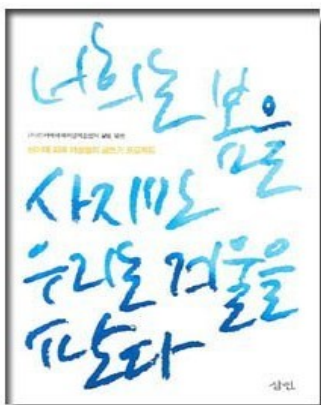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은 사회가 부여하는 것인데, 나도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낙인을 주지 않으려면 (내가 나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려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무한발설 중에서..〉

지난 12월 6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의 주최로 “토크 콘서트 무한발설”이 진행되었습니다. ‘뭉치’는 6년째 활동해오고있는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의 전국 모임입니다. 지역마다 자조모임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1년에 한번 만나는 워크샵도 하고, 책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 언론에서 떠드는 이야기들은 많은데, 정작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의견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주고, 여성들의 선택에 대해서라면 이해보다는 비난의 잣대를 먼저 들이대는 세상에게 ‘내가 경험한 성매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12월 6일의 토크콘서트는 참 흥겨웠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늘 나누던 이야기 였는데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하니까 더 속이 후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성매매 산업안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는 용감한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함께 분노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보리]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성매매 경험 여성들의 책!



- [붉은 벨벳앨범속의 여인들] 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 [축하해] 박금선
-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아메리카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 김연자

To, 고마담

저는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오직 대학만 가면 내 인생은 좋아질거란 희망 하나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왔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얼마되지 않아서 수업을 듣는데 몸이 이상한 반응이 오기 시작한거예요. 발표를 할 때 나를 시키면 어찌나, 교수님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찌나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면 꼭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하더니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거예요. 손도 떨리고 식은 땀도 나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수업 중에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교실을 벗어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괜찮아지더라구요. 교실 안에서 숨이 쉬어지지 않고 심장이 쪼여지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 무서워서 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거예요. 그러다가 어쩔수 없이 2학기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무조건 참고 앞만 보고 학교 집 학원을 오가면서 내 꿈을 위해 참았던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 허무하고 힘들어요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런 증상이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증상이 오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불안이

To, 불안이님

이경규, 김하늘, 차태현, 김장훈 등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서 이 공황장애에 대해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한 종류예요. 불안을 느끼는 순간에 심장이 터질듯이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으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끼고, 손에 땀이 나는 등의 신체적 증상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체적인 반응이 올 때 너무 당황하고 어찌해 아할지 몰라서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불안에 엄습되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앞서서 포기하는 마음이 앞설 수도 있을 거예요.

공황장애의 특징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는 그 통증에 집중하기보다 의식적으로 숫자를 세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숨을 들이켜고 내쉬는 것을 하면서 가쁜 숨을 안정시키고 몸을 이완시키고, 이 상황은 ‘지나간다 지나간다’ 라는 자기 암시 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식을 불안한 상황과 신체적 이상 증상에 두지 않고 호흡에 두는 거지요. 공황장애가 불안 장애의 일종이라고 하였는데요, 우린 흔히 불안이 엄습해오면 그 불안한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이 생각을 더해서 불안을 키우곤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생각을 끊어야하는데, 숫자를 세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공황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불안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있어서 마음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몸의 아픔도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공황장애가 발생할 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생각 때문에 불안했는지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각 할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와 면밀한 상담을 받은 후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이 시간은, 분명 지나갑니다!

-고마담

심리상담을 연결해드립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공공 앓고 있는 언니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워하는 언니들, 답답함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해소할데 없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언니들, 무기력하고 자꾸 눈물만 나오는 언니들 모두 모두~~ 심리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심리상담가를 연결해드립니다.
010-8230-6279로 연락하시거나 문자 남겨주세요.

요망한 망상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지?
이것저것 건드려보는
거침없는 망상과 탄죽결기!



비범죄화 이젠 좀 안 되 겠 니 !

별별신문 나갈 즈음에는 대선이 끝나 이미 19대 대통령님이 정해졌겠죠.
누가 됐든 ‘잃어버린 5년’ 쓰레기 잘 치우고 없는 사람 살만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대통령은 이제 누군가로 정해졌고 약속한 공약들은 착착 잘 실천이 되는지 도끼눈을 뜨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대선후보들은 이런저런 분야의 공약들을 내놓았는데요. 우리 언니들의 권리도 보장해주면서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실천 공약을 더 풍부하게 내놓는 후보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네요. 지금은 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가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여성의 성매매는 비범죄화를 검토한다’라고 말한바 있고, 기호 5번 무소속 김소연 후보만이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을 지향하며,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권리보장”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을 뿐이죠. 성매매근절 중심 사고 외에 고리사채, 부당한 근로조건,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 등 실제 일하는 언니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준다면 좋을 텐데요. 그나마 단속만 외치기보다는 비범죄화를 정책공약으로 걸어놓은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목소리들이 힘없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정당에서도 당장 정책으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머리 싸매고 고민들 좀 하시기를 바래볼 뿐이죠. 5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은 끝났지만, 하루하루 언니들의 삶은 계속 되잖아요.

[강]

별별신문을 이용하세요~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소식, 성매매 관련 소식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유흥업소에서 겪으신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주시거나 부조리한 사건들을 고발해 주십시오.

고발, 사연 보낼 곳

*이메일 : eloom2003@naver.com

*휴대폰 : 010-8230-627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2-12 5층 ‘별별신문’ 담당자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게 주소나 직접 받기 편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별별신문이 발행될 때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010-8230-6279로 연락하시거나 문자 남겨주세요.

두루 살리고 살피는 정보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그동안 다인가구 중심으로 이뤄졌던 정책에서 벗어나 날로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들이 혼자 살아가는데 느끼는 생활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한다.

- 1. 주거 :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 개발·보급, '15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2천호 공급
- 2. 안전 : 무인택배 시스템 도입, 다가구 밀집지역 창문, 배관 등에 방범창 설치
- 3. 건강 : 산부인과 진료 편히 받도록 보라매병원 '여성전문진료센터' 운영
- 4. 일자리 : 갑자기 실업상태 놓여 생계 힘든 여성 일자리 연계 '여성 1인가구 인턴십
- 5. 커뮤니티 : 여성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싱글여성 커뮤니티 '15년까지 100곳 지원
- 6. 불편해소 : 집 계약 시 사기 겪는 여성 세입자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



당장 모든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나마 이제라도 이러한 정책이 나왔다는 것이 반갑기만 하다. 서울시 정책이 아니더라도 이미 여성성공센터 W-ing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가구 임대주택 있으니 이 또한 소개한다.

1인 가구 (비혼) 여성 임대 주택 '상도동 우리집'

여성들의 다양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을 임대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이다.

- 1. 건물 형태 : 3층 빌라
- 2. 임대료 : 8~12만원 이내(선불), 관리비 등 공과금(1/n), 생활비
- 3. 모집대상 :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생활비 및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주거가 절실히 필요한 빈곤여성(업소 일 그만 두고 싶은 분들에게 딱!!)

[숨]

